

# 서점가에도 자리펴고 나앉은 易術도서

‘사주학’ 등 폭넓은 관심 끌어... 대형서점에 특설코너까지

자신의 미래나 운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가지기 시작한 본원적인 욕망의 한 부분일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각종 형태의 점술법들은 이를 잘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이미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우환을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는 알게 모르게 찾고 의지하게 되는 운명판단의 기제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주팔자, 궁합, 성명풀이, 풍수지리 등이 그것으로 최근 서점에는 이러한 방법론으로 개인의 미래를 점치고 운명의 흐름을 쉽게 읽어낼 수 있도록 꾸며진 책들이 다수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 周易의 원리 바탕한 易術도서

이러한 책들은 대체로 易의 기본이 되는 음양의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역술도서’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곤 하는데 역술도서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易의 유래와 쓰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易 즉 易經은 오경 중의 하나로 그 발생은 5천년전 중국 상고시대 제왕인 태호희씨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이렇게 탄생된 易은 하나라 시대의 連山易과 은나라 시대의 歸藏易을 거쳐 주나라 시대의 周易으로 발전되었다.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일컫는 易은 周易으로 이는 현존하는 유일한 것이 주역인 까닭이다. 한편 주역의 쓰임새에 대한 것은 공자가 주역의 진리를 후세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쓴 十翼 중 주역의 실천윤리를 해설한 ‘繫辭上傳’편에 잘 나와 있다. “역에 성인의 道가 빛이 있으니 말을 하려는 사람은 그 辭를 숭상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變을 숭상하고, 어떤 것을 만들려는 사람은 그 像을 숭상하고, 앞날의 일을 알고려는 사람은 그 占을 숭상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역술도서들은 역의 네 가지 쓰임새 중 占의 기능에 역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역술도서로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중 가장 많은 것이 이른바 ‘사주추명학’에 의한 운명진단서들. 「손자 사주방법」 1~2(손자/유덕성, 세종출판공사) 「10간 12지 인생비법」(오창학, 대야) 「六甲」 「六甲經」(마의천, 동반인) 「한국인의 사주팔자」(김성진, 무궁화출판사) 「四柱學의 活

用法」(유래웅, 창원) 「운명을 푸는 방정식」(테오도라 로우/홍송도, 형성사) 「이 여자의 運命」(愼玉淑/전후수, 명문당 「모짜르트는 쥐띠였다」(폴라 텔슬/하창수, 전원) 등이 그것이다.

「운명학 비서」 「당년운세편」의 두권으로 구성된 「손자 사주방법」은 비전되어오던 손자의 사주법을 국내 최초로 현대의 요구에 맞게 분석하고 해설을 붙인 책. 각각 전생편과 현생

역술도서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삶에 청량제 구실을 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미에서는 일종의 카운셀러 또는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길잡이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몇몇 책들에는 경계해야 할 요소 또한 없지 않다.

편으로 이루어진 「六甲」 「六甲經」은 저자가 30여년간의 역학공부와 매년 3천여명의 운세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육십갑자와 오행의 원리로 각 사주의 특성을 고찰하고 진단을 한 것이다. 「한국인의 사주팔자」 「四柱活用法」은 직접적인 운명 조건서라기보다는 역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주학의 원리와 활용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운명을 푸는 방정식」 「이 여자의 運命」 「모짜르트는...」은 모두 외국인에 의해 쓰여진 운명진단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풍수지리에 근거, 가옥과 묘자리 등이 위치와 삶의 길흉과의 관계를 밝힌 책도 다수 있는데 「수맥과 풍수」(임응승, 청문각) 「한국의 明堂」(김호연, 동학사) 「實存 風水地理」(기대운 외, 영기획) 「좋은 땅 좋은 집」(임준, 한국부동산신문사) 「성공하는 집 실패하는 집」(羅婉慈/송연미, 참샘) 등이 그것이다.

「주간여성」지에 연재되었던 글을 모은 「한국의 명당」은 집자리, 묘자리 등의 현장취재를 통해 풍수지리의 신비를 벗긴 것. 「實存 風水地理」는 청와대, 3김씨의 집, 육영수씨의 묘 등 실존하는 가옥과 묘자리의 풍수지리적 특성을 살피고 있어 흥미롭게 읽힌다.

결혼을 앞둔 남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궁합. 국내 유일의 동양오술학자라는 저



서울 종로서점의 역술도서 코너.

자 소개와 함께 시중에서 사용되는 궁합법의 오류들을 분석, 비판하는 한편 합리적인 ‘자미두수 궁합법’과 時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지문으로 보는 궁합법 등을 소개한 「진짜궁합 진짜 궁합」(오상익, 삼한) 「인생과 궁합」(심원정, 교학사) 등이 나와 있다.

이밖에 주역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되 독특한 역법과 해석을 가해 펴낸 책들도 눈에 띈다. 「인생 십이진법」(정다운, 밀알)은 그 대표적인 책이다. 89년에 출간된 이 책은 지난해 11월까지 58쇄를 찍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십이간지에 의한 운명판독과 서양의 점성술 등을 결합, 성격, 직업, 건강, 주택, 사랑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경암 신수비결」(이경암, 가리내)과 「天氣漏池」(안중선, 고려문화사)은 일반적인 만세력과는 다른 독특한 역법을 사용하고 있는 책.

## 인간범주 벗어난 天機

이러한 역술도서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부쩍 늘어났으며 독자들의 관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현상을 확산한 (숭실대 철학)교수는 이렇게 정리한다.

“최근 들어 고조된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현상도 주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즉 종래의 이성 절대주의, 합리주의가 지배하던 질서에 대한 거부반응의 일환으로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여기에 인간외의 개입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운명의 흐름을 예단하는 역술의 일견 비합리적인 측면이 조응한 것 같다.”

역술도서들이 양산된 최근의 현상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우려할 것까지는 없으나 경계할 것은 있다”는 말로 모아진다. 역술도서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삶에 청량제 구실을 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미에서는 일종의 카운셀러 또는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길잡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면 경계해야 할 요소는 시중에 나와 몇몇 책들에서 찾아지는 혐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역술도서와 관련하여 품게 되는 혐의의 첫번째는 필자의 능력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이다. ‘역학의 대가’ ‘몇년간 수도·정진’ ‘깨달은 바 있어...’ 등의 약력사항만으로는 易의 문구를 해석할 능력과 우리말로 풀어 쓸 문장능력을 제대로 지닌 사람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아울러 이들 책이 易이 함의하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영욕을 뛰어넘는 자연의 이치와 삶의 윤리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의 문제로, 이는 일부 책에서 보여지는 주술적 제언과 삶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단정적 문구 등에서 품게 되는 우려이다. 한편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외국서적의 무분별한 번역도 경계해야 할 요소로 지적된다.

이미 우리 생활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는 易術의 순기능을 살리고 해악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술도서의 저자와 출판인 그리고 독자 모두가 우리나라의 옛 역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운명론이야말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天機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참으로 한마디 한마디가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박남정 기자